

## 05. 『울곡전서』

『울곡전서』는 울곡이 지은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14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시집은 박지화(朴枝華) 등이 편집하고, 문집은 박여룡(朴汝龍) 등이 성훈(成渾)의 도움을 받아 편집했다.

이전 1611년(광해군 3년)에 해주에서 목판으로 『울곡집』이 발간된 적이 있었는데 총 10권(시집 1권, 문집 9권)으로 구성된 문집이었다. 이후 1682년(숙종 8년)에 박세채(朴世采)가 울곡이 쓴 문장 중 빠진 것들을 더 모아서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을 간행한 바 있었다.

다시 1742년(영조 18년)에 이재(李穡)가 시집, 문집, 속집, 외집, 별집을 하나로 합하고,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추가해 1749년에 『울곡전서』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활자본으로 총 23권 38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814년(순조 14년)에 해주에서 습유(拾遺) 6권과 부록의 속집이 추가되어 간행되었다. 이때 발간된 판본이 현재 우리가 보는 총 44권 38책의 『울곡전서』이다.

현대 들어와 1958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울곡전서』를 영인, 간행하여 보급했다. 이 판본은 한문 원문만 들어 있다. 1961년 고려대학교 한국고전국역위원회에서 『울곡전서』의 성리학에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註)를 붙였다. 이를 편집해 발간한 것이 『울곡성리학전서』이다.

이윽고 1968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고전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국역울곡집』을 발간했다. 현재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사이트(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에서 한글로 번역된 『울곡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일러두기를 보면 “대동문화연구원(大東文化研究院)에서 간행된 《울곡전서(栗谷全書)》를 대본으로 삼았고, 그중 사상을 다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여 I·II집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있다. 전문 번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번역되어 있다.

『울곡전서』의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 1 : 사(辭) 2편, 부 3편, 시 132수

권 2 : 「호당야좌(湖堂夜坐)」, 「유삼청동(遊三清洞)」 등 176수의 시

권 3 : 「논요승보우소(論妖僧普雨疏)」, 「논윤원형소(論尹元衡疏)」, 「사정언소(辭正言疏)」, 「간원진시사소(諫院陳時事疏)」, 「육조낭관논심통원소(六曹郎官論沈通源疏)」, 「옥당진시폐소(玉堂陳時弊疏)」, 「진미재오책차(陳弭災五策筭)」 등 11편의 소(疏)와 차(筭)

권 4 : 「옥당논을사위훈차(玉堂論乙巳僞勳筭)」, 「의진시폐차(擬陳時弊筭)」, 「논붕당소(論朋黨疏)」 등 8편

권 5 : 「옥당진계차(玉堂陳戒筭)」, 「만언봉사(萬言封事)」, 「진해서민폐소(陳海西民弊疏)」 등 8편

권 6 : 「청물과애소(請勿過哀疏)」, 「옥당논군덕사사차(玉堂論君德四事筭)」, 「진성학집요차(進聖學輯要筭)」, 「사간원청면학친현신차(司諫院請勉學親賢臣筭)」 등 8편

권 7 : 「사대사간검진세척동서소(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사간원걸변통폐법차(司諫院乞變通弊法筭)」, 「사간원청진덕수정차(司諫院請進德修政筭)」, 「진시폐소(陳時弊疏)」, 「진시

사소(陳時事疏), 「사이조판서소(辭吏曹判書疏)」 등 17편

권 8 : 「청혁양종선과계(請革兩宗禪科啓), 「진황해도민폐계(陳黃海道民弊啓), 「복명후진 일로민폐계(復命後陳一路民弊啓), 「육조계(六條啓)」 등 20여 편의 계와 2편의 의(議)

권 9 : 「상퇴계이선생(上退溪李先生), 「여기명언대승(與奇明彦大升), 「답박화숙순(答朴和叔淳), 「답성호원혼(答成浩原渾)」 등 서 17편

권 10: 「답성호원(答成浩原)」 등 9편

권 11 : 「답송운장익필(答宋雲長翼弼)」 등 39편

권 12 : 「답정계함철(答鄭季涵澈), 「여이몽응제신(與李夢應濟臣)」 등 30편. 이 중에는 사칠론(四七論)이나 인심도심(人心道心) 등 성리학 주제 및 예제(禮制)와 관련된 문장이 많음.

권 13 : 「본국제세제황제문(本國祭世帝皇帝文), 「본국청개종계주문(本國請改宗系奏文), 「예조답대마도주서(禮曹答對馬島主書), 「기우제문(祈雨祭文)」 등 11편의 응제문과 「성학집요서(聖學輯要序), 「격몽요결서(擊蒙要訣序)」 등 7편의 서(序), 「구용첩발(九容帖跋), 「학부통변발(學部通辨跋)」 등 5편의 발, 「희천양현사기(熙川兩賢祠記), 「보인당기(輔仁堂記)」 등 9편의 기

권 14 :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 「극기복례설(克己復禮說)」 등 설 6편과 「부자문장찬(夫子文章贊)」이라는 찬 1편, 「사암금명(思菴琴銘)」 1편, 「제퇴계선생문(祭退溪先生文), 「제청송선생문(祭聽松先生文), 「성대곡사우제문(成大谷祠宇祭文)」 등 제문 16편, 「기자실기(箕子實記), 「김시습전(金時習傳), 「이씨감천기(李氏感天記), 「논심성정(論心性情), 「기대학소주의의(記大學小註疑義), 「회재대학보유후의(晦齋大學補遺後議), 「역수책(易數策), 「천도책(天道策), 「공맹언성도군려의(孔孟言性道軍旅疑)」 등 18편의 잡저

권 15 : 「동호문답(東湖問答), 「학교모범(學校模範),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 「은병정사약속(隱屏精舍約束), 「시정사학도(示精舍學徒), 「문헌서원학규(文憲書院學規)」 등

권 16 : 「서원향약(西原鄉約), 「해주향약(海州鄉約), 「사회계약속(社會契約束)」 등 잡저 5편

권 17 : 신도 비명 8편과 묘갈명 9편

권 18 : 「정암조선생광조묘지명(靜菴趙先生光祖墓誌銘)」 등 14편의 묘지명과 7편의 행장

권 19~26 : 「성학집요(聖學輯要)」

권 27 : 「격몽요결(擊蒙要訣), 「제의초(祭儀鈔)」

권 28~30 : 「경연일기(經筵日記)」

권 31과 권 32 : 「어록(語錄), 김진강(金振綱), 박여룡 등이 율곡의 말을 기록한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이이의 말을 수집해 놓은 것

권 33 : 부록. 세계도(世系圖), 연보 상(上)

권 34 : 연보 하(下), 문인록(門人錄)

권 35 : 문인 김장생(金長生)이 쓴 행장

권 36 : 대제학 이정구(李廷龜)가 지은 시장(諡狀)과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신도비명

권 37 : 「묘표음기(墓表陰記)」

권 38 : 「제가기술(諸家記述), 「전후변무장소(前後辨誣章疏)」 등

권 33~38 : 부록

권 39~44 : 습유(拾遺). 습유란 잃은 물건을 줍는다는 뜻으로 빠진 글을 찾아서 보충한 것을 말함.

- 습유 권 1 : 부 5편, 시 202수
- 습유 권 2 : 소와 차 7편, 계 47편, 의(議) 3편, 서(書) 16편
- 습유 권 3 : 28편의 서(書), 30편의 응제문, 7편의 서(序)
- 습유 권 4 : 「제생상읍의(諸生相揖義)」, 「소아수지(小兒須知)」, 「논사칠설(論四七說)」 등 잡저 15편
- 습유 권 5 : 「신선책(神仙策)」, 「기도책(祈禱策)」, 「절서책(節序策)」, 「수요책(壽夭策)」, 「시폐칠조책(時弊七條策)」 등 잡저 5편
- 습유 권 6 : 잡저 12편, 묘지명 1편

이경동은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유학연구』52, 2020.8)라는 논문에서 『율곡전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기나긴 율곡문집 편찬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율곡 사후에 율곡의 제자들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율곡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문집의 간행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스승 율곡을 높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 2) 『율곡집』은 율곡이 사망한 뒤에 성혼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제자인 박여룡과 김장생이 1611년에 간행하였다.
- 3) 17세기 후반에 박세채는 『율곡집』에 수록되지 못한 자료를 정리하여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의 편찬에 착수했다. 송시열계는 『율곡별집』에 실린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갑술환국 이후에 『율곡별집』을 수정하였다.
- 4) 송시열의 학문을 계승한 노론계는 기존에 간행된 문집들과 별본들을 재편성하여, 이재가 1744년에 38권으로 된 『율곡전서』를 간행을 추진했다. 이 문집은 송시열로부터 계승된 율곡 인식을 바탕으로 편성된 것이다.
- 5) 1746년에 이재의 제자인 흥계희가 영조의 명을 받아 원집 38권과 습유 6권을 추가 구성하여 『율곡전서』를 간행하였다. 습유에는 이재가 제외한 문장이나 검증이 되지 않는 문장도 모두 수록했다.

『율곡전서』는 이렇듯 수많은 유학자가 참여하여 만들어 낸 문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이 있었고 장기간에 걸친 율곡 제자들의 정성이 아우러진 작품이었다.